

제44대 총학생회 ‘이공일이’ 54.76% 로 당선

총여학생회 ‘女子친구’, 총대의원회 ‘기준하나’ 선출

제주대의 한 해를 이끌어 나갈 2012학년도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발표됐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5일 치러진 중앙자치기구 선거에서는 총학생회에 ‘이공일이’와 ‘YES, WE CAN’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나와 경선을 치렀다. 더불어 총여학생회에 ‘女子친구’, 대의원회에 ‘기준하나’ 선본이 각각 단선으로 선거를 치렀다. 동아리연합회는 오는 18일까지 후보자등록을 하고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총학생회 선거결과 ‘이공일이’ 정



정준호(법학 4·정)



정재우(국교 4·부)

-정준호(법학 4) 부-정재우(국어교육 4) 후보가 2012학년도 제44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회장과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15일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8904명 중 6844명이 참

여해 76.86%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해 78.59%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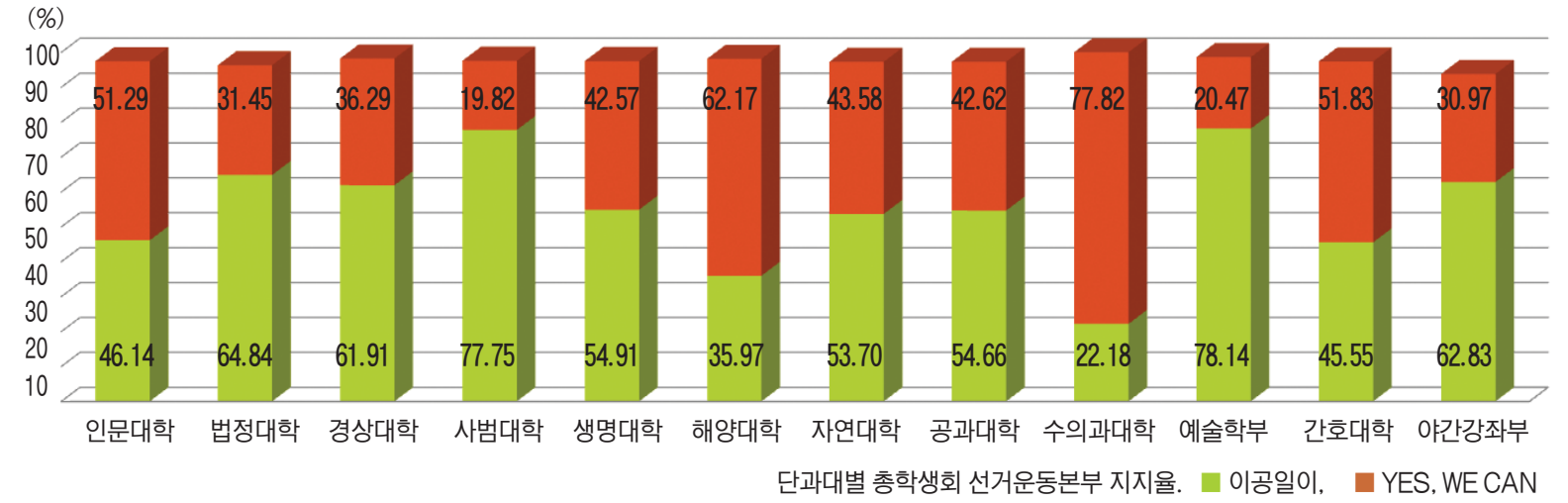
총학생회 선거 마감결과 ‘이공일이’는 54.76%의 지지율인 총 3748표를 획득 ‘YES, WE CAN’의 총 2928표(42.78% 지지율)에 820표를 앞서 당선됐다. 이날 무효표는 168표(2.45%)로 집계됐다.

정준호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슬로건에 걸맞게 일만아라가 공감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면서 “처음 다짐했던 것들을 총학생회장 활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여학생회 선거결과 총 유권자 4082명 가운데 3173명(77.73%) 투표로 ‘女子친구’ 정-오상은(정치외교 2) 부-오숙경(경제 3) 후보가 찬성 2423표(76.36%), 반대 721표(22.72%), 무효표 29표(0.91%)로 당선됐다.

또 지난 9일 치러진 총대의원회 선거에서는 ‘기준하나’ 정-김진영(경영 4) 부-김기완(산업응용 3) 후보가 과대표 213명 중 200명(93.9%) 투표로 찬성 182표(91%), 반대 18표(9%)로 당선됐다. 김명지 기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 등록

지방 소재선 처음으로

줄기세포연구센터(센터장 박세필 분자생명공학전공 교수)는 지난 7일 지방에서 처음으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으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15일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공동실습관에서 현판식과 체세포핵이식기술 시연회를 가졌다.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는 환자의 유전자 담긴 체세포의 핵을 난자에 이식해 만든 줄기세포다. 면역 거부반응 없이 효과적으로 난치병을 치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 분야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윤리적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등록으로 줄기세포연구센터팀은 기존 수정란줄기세포 연구는 물론 배아줄기세포 연구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로 난치병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데도 한 발짝 다가섰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등록 요건은 장비, 체세포핵이식기술, 줄기세포배양기술, 특정세포분화기술 부분 모두 뛰어나야 한다. 이번 선정



지난 15일 공동실습관 앞에서 줄기세포연구센터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으로 줄기세포연구센터는 이 모든 면에 대해 인정받았다.

박세필 센터장은 “줄기세포배양학립은 아직 국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 기술”이라며 “이번 선정이 줄기세포배양학립에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수습기자

제주대 정시모집 요강 확정

제주대(총장 허황진)가 2012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확정했다.

제주대는 이번 정시모집을 통해 나군 983명, 다군 813명 등 총 179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에 따르면 일반학생인 경우 수능점수 85%, 학생부 성적 15%가 반영된다.

단, 다군 모집에서는 수능점수가 100% 반영되며 학생부 성적은 동점자 순위 결정시에만 활용된다.

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부 등은 실기 51%, 수능점수 34%, 학생부 성적 15%가 반영되며 체육학부는 실기 34%, 수능점수 51%, 학생부 성적 15%

가 반영된다. 교육대학은 수능점수 76.5%, 학생부 성적 15%, 면접고사 8.5%를 반영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원서는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ac.kr>) 또는 (주)유웨이(<http://www.uwayapply.com>)에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나·다군의 경우 내년 2월 3일에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 입학관리과(754-2044)로 문의하면 된다.

강민성 수습기자

재일제주인센터

전시물 기증 모집

재일제주인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문화교류관 내 전시관과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를 기증 받는다.

일본에서 사용한 물건, 일본에서 보내온 물건, 사진 등 재일제주인과 관련된 자료를 받는다.

기증방법은 방문, 팩스(754-2847), 전자우편(hyang@jeju.ac.kr) 등이 있다.

이창익(재일제주인센터) 센터장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들은 재일제주인 교육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ww.asan-nanum.org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

금강산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아산 정주영

青年不敗

주요사업	요 강	선발 방식	신청 기간
정주영 창업 캠퍼스	■창업 공간 제공과 교육 지원 ■엔젤투자자 연계 지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심층심사	수시접수
해외 인턴사원 파견	■모집인원 : 연 1,000명 (17기 200명) ■파견지역 :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 등 ■파견기간 : 6개월 (17기 : 2012년 1월 ~ 2012년 6월)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면접	2011.11.14 ~ 11.23
해외 봉사단원 파견	■모집인원 : 연 500명 (17기 100명) ■파견지역 :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 중국(서부), 러시아(시베리아) ■파견기간 : 1년 이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최종면접	12월 중 공고 예정
비영리 공익단체(NGO) 창업 이카데미	■모집인원 : 연 200명 (17기 50명) ■시기 : 매 분기 1회 ■기간 : 4박 5일 ■우수 수료생 해외 NGO 견학 파견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면접	2011.11.14 ~ 11.30
창업경진대회	■EBS '브레인 빅뱅' 청년 창업 오디션 -방영일시 : 2011년 11월 18일 ~ 2012년 1월 6일(금) 19:50 ~ 20:30	■최종 우승자에게 1억원의 창업자금 지원	
아산나눔재단 사무국 직원 공개채용	■경력 및 신입직원 ■인턴직원 ■지원 봉사자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면접	2011.11.14 ~ 11.30

※ 상세 내용은 www.asan-nanum.org 참조

사설

대학을 지키자

<대학>은 주희가 어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군자를 길러 내기 위한 교재로 공자가 쓴 <예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편찬한 책이다. 그리고 대학은 현대식 교육제도가 들어오면서 유교문화권에서 최고 고등 교육기관의 이름이 되었다. 여기에는 대학이 전인교육을 통해 지적 시민과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염원과 가치관이 담겨 있었다. 서양의 대학도 바로 진리와 자유, 민주주의 보루로서 봉건적 권력과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키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지금 제주대학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대학의 가치와 정체성을 상실한 채 거의 기업 연수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학생들은 진리를 탐구하도록 격려받기보다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내몰리고 있다. 교수들도 단기적인 연구실적 쌓기와 프로젝트 따내기에 골몰하지 않으면 무능하다는 비난을 들어야만 한다. 사회경의나 지역문화 창달은 거들떠볼 여유조차 없다.

경제만능주의 이념을 가진 현 정부와 교과부는 이러한 대학의 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다. 최근에는 국립대학마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학장의 민주적 선출 제도를 폐지했다. 더 나아가 대학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총장을 선거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했던 탓으로 돌리고, 자의적 대학평가와 그에 근거를 둔 예산 통제를 통해 대학을 소확보다도 못한 직업훈련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

다. 학생들도 과대표, 단과대 대표, 총학생회장을 스스로 뽑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러한 민주적 제도는 지적 시민을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이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와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와 직원들이 자치능력이 없다면서 학장 선출권에 이어 총장 선출권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현 정부는 취업을 등을 내세워 대학을 직업훈련소나 기업 연수원으로 만들었지만,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대학을 기업 그 자체로 바꾸려하고 있다. 대학이 기업이라면, 대학에는 당연히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

공자와 주자의 <대학>이 경영지침서가 아닌 것처럼 현대의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서양의 University 역시 기업의 한 종류로 간주된 적이 없다. 제주대학 역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진리 탐구, 자유의 신장, 지적 시민의 교육,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우리 대학의 필수불가결한 한 요소다. 진리, 자유, 정의와 민주주의 등 인류의 가치를 탐구하고 지적 시민을 양성한다는 대학의 목적을 부정하고, 대학을 효율성을 추구하는 비민주적 기업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학생, 교수, 직원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도구적 대학관을 비판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정책의 수단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설정한 정책 목표에 필요한 지식과 인력을 제공해 주면 그것으로 대학의 기능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런 도구적 대학관(大學觀)은 사회 저변을 흐르면서 끊임없이 대학을 압박하여 왔다.

대학이 기술적 지식과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대학의 기능을 그런 범위로 한정하려는 독단적인 생각과 압력이다. 대학은 참으로 외로운 조직이다. 재정적 자율성, 권력적 자립성마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대학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지키기 위하여 고된 여정을 걸어왔다.

대학의 역할은 정책의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은, 정책 방향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 대학이 그걸 문제 삼지 않으면, 정책의 타당성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민주제적 구조 속에서는 국민들이, 말하자면 여론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여기에 중대한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 국민들의 의사나 여론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찬반의 여론은 사안마다 충돌하고, 주어진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서 여론은 계속적으로 변

동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가 단일한 형태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 설득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단일한 방향으로 형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역할은 이성적 비판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국민의 통합적 의사, 통일적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정치의 부활,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SNS와 같은 소통 매체의 기술적 변화에 따라 각양각색의 정치적 주장이 만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 주장들이 서로 소통되며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며 공적 문제에 대해 감성적 접근, 당파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지금 대학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다양한 정치적 주장들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통합하는 이성적 기초, 이념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최근 정부의 대학정책이 도구적 지표를 내세워, 대학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대출도서 903명 연체 ‘이기주의’ 만연

도서 대여 기간연장 고려해야

도서관 책을 자기 것인 양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중앙도서관 연체자 통계에 따르면 도서 연체자가 총 903명, 이에 따른 연체 도서는 총 1675권으로 집계됐다. 연체자 현황을 보면 교수가 8명(21권), 교직원 7명(16권), 대학원생 77명(183권), 조교 3명(7권), 학부생 808명(1448권)이다.

이 중 최장연체자는 산업대학원 O모 대학원생과 사범대 모학과 S모 조교로 2171일이 연체됐으며, 생명대 모학부 K모 학생도 1836일, 의대 L모 교수 558일, 본부 K모 직원이 466일을 연체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가 학교에 남아있지 않아 이들에게서 책을

되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O모 대학원생은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S모 조교와 L모 교수 그리고 K모 직원은 퇴직, K모 학생은 제적된 상태이다.

강권의(중앙도서관) 자료운영팀장은 “연체자에게 3일에 1번씩 도서 반납을 알리는 SMS를 발송하고 있다”며 “장기연체자들에게 대해서는 추적을 통해 책을 찾아내려하고 있지만 그들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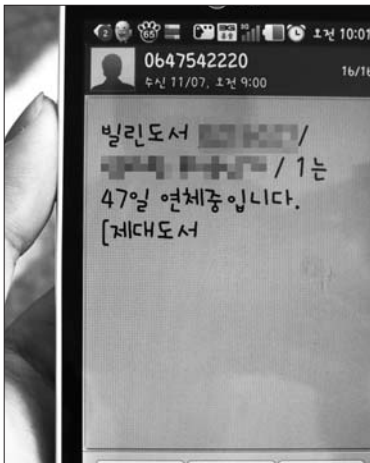
중앙도서관은 도서 연체를 막기 위해 반납기일을 경과한 자료는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시키고 있으며 도서 연체자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와 SMS를 발신하고 있다. 그리고 연체자에 대해서 자료대출 및 증명서 발급 중지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 사이에선 도서 대출기간이 짧아 도서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김조왕(산업디자인학부 1)씨는 “타 대학에 비해 도서 대출기간이 짧다”며 “도서 대출기간이나 연장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 국립대학 중앙도서관 도서대출기간을 살펴보면 경상대, 대구교대, 전남대, 충남대 등이 10일, 강릉원주대, 부산교대, 서울대, 목포대 등이 14일이다. 대출기간이 가장 긴 곳은 인천대로 학부생에게 5권의 책을 20일 동안 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강권의 팀장은 “학생들과 특별열람자(대출기간 30일)의 도서대출 형평성 때문에 대출기간을 최대 14일로 연장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도서 대출기간을 늘리면 도서 회전을 떨어져 오히려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가 연체된 학생의 휴대폰으로 중앙도서관 측에서 문자를 전송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연체자에게 3일에 한번 문자를 발송하지만 도서 연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강 팀장은 “도서관은 공중도덕이 필요한 곳”이라며 “도서관을 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라 생각하며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민성 수습기자

생활협동조합 내년 1월 출범

조합원에게는 잉여금, 의결권 등 주어져

소비조합이 내년 1월부터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으로 바뀐다. 소비조합은 2010년 10월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비조합에서 생협으로 전환기 위해 관련 준비를 해왔다.

생협은 학생, 교직원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체계로 이뤄져 있다.

생협의 조합원은 출자액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의결권을 갖고 운영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은 출자금액에 따라 배당 받는다.

기존의 소비조합은 총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사반영이 힘든 체제였지만 이번 생협 전환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사장을 선임하고 사업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좌장범(학생복지과) 장학복지팀장은 “소비조합은 법 테두리 없이 임의로 조직된 기구라 운영이 불안정했는데 이번 생협 전환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협은 이익금이 발생하면 적영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안정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이익 배당금을 줘 구성원들에게 여러모로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생협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생협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이희종(관광경영 3)씨는 “생협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의사결정과 관련한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 가입했다”고 말했다.

양희례(인문홍보 1)씨는 “학생식당 메뉴 개선, 가격책정 등 의견을 낼 수 있어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생협 설립 기준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조합원과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출범이 가능하다. 이에 소비조합은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합원을 모집해 △ 학생 105명, 232만원 △ 교수 70명, 1863만원 △ 직원 183명, 1890만원 △ 조합직원 20명, 650만원 △ 기타 2명, 2만원으로 총 380명의 조합원과 4637만원의 출자금이 모여 기준을 충족했다. 현성미 기자

강사운, 정인호, 김경호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제주대 교수들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크스 후즈 후에 등재됐다. 주인공은 강사운(의전원 신경과학교실)교수와 정인호(외과학)교수, 김경호(인문홍보)교수.



강사운(신경과학) 교수



정인호(외과학) 교수



김경호(인문홍보) 교수

강사운 교수는 신경학 연구분야의 성과를 널리 인정받아 ‘마르크스 후즈 후 인터월드’ 세계인명사전 2011~2012년판에 2년 연속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강 교수는 신경근질환 관련 운동신경원 질환, 근육병, 다발성 신경병증 등에 대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정인호 교수는 담도 관련하여 국제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

한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마르크스 후즈 후 2012년판에 등재됐다.

정 교수는 위암분야의 전문가이며, 현재 IGCA(국제위암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호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저작물 관련 등 언론/미디어법제 분야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마르크스 후즈 후’ 2012년판에 등재됐다.

김 교수는 국내저명학술지에서 10여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벌여왔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고호성 편집국장 고용희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내선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un.ac.kr

제31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여 제31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1. 행 사 명 : 제31회 백록학술상
- 2. 응 모 자 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 3. 응 모 분 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4. 시 상 : 학부생/대학원생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5. 접 수 마 감 : 2011년 12월 12일(월) 18:00까지
- 6. 접 수 장 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7. 당선작발표 : 2012년 신년특집호(1월 4일자)
- 8. 심사및시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제주대병원 소식

제주암센터, 위암 건강강좌 개최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은 지난 4일 병원 2층 대강당에서 제3회 위암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소장 장원영) 주최로 열린 이번 강좌는 도민을 대상으로 최근 30, 40대의 젊은 층에까지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위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을 알리고자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는 제주대학교병원 외과 정인호 교수와 내과 김홍업 교수가 각각 위암의 예방과 위암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한 강의를 펼쳤으며, 위암 분야의 대가인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류근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위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강의에 앞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암 치료 중 유용한 식이 상담이 진행됐다. 또 강기가 끝난 후에는 위암에 유용한 식단을 직접 시식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장지원 교수, 신생아관련 수술 성공

제주대학교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홍부외과 장지원 교수는 출생한지 3일된 신생아에게 도내 최초로 선천성 식도폐쇄증 및 기관지 식도루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선천성 식도 폐쇄증은 임신 초기 식도와 위가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폐쇄가 되면서 하부 식도와 기관지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유 또는 분유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흡입성 폐렴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드문 선천성 소화기 질환이다.

제주대병원, 안정형 특별진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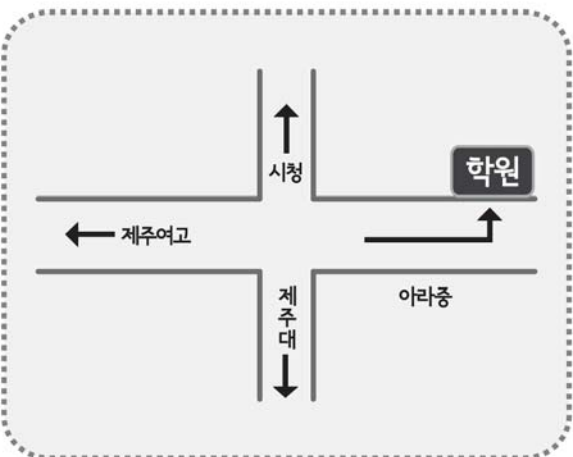
제주대학교병원은 오는 19일과 26일, 다음달 10일 도내 안정형 전문 교수가 없어 불편을 겪는 도민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고 특별진료를 펼친다. 안정형 분야의 대가인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확장안교수를 초청하여 눈물길 협착으로 인한 눈물흘림, 눈꺼풀 속말림으로 인한 눈썹 찢림 등의 질환에 대해 진료 및 수술을 진행한다.

해당 질환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를 원하는 도민은 상담을 받은 후 진료 일정을 잡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대학교병원 안과(717-1730)로 문의하면 된다.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단과대학 회장단 선출... 간호대학은 보궐선거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결과가 지난 16일 발표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연대학에서 2팀이 후보로 나와 경선을 치렀으며, 나머지 단과대학은 단선으로 진행됐다. 간호대학은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예술학부는 내년 예술디자인대학으로 정식 출범하는 대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다음은 단과대학 선거 결과다.

△인문대학 ‘말하는대로’ 정·차기운(중어중문 4), 부-박재범(영어

수(경제 3), 부-신덕규(관광경영 2) 후보가 총 유권자 1564명 중 1058명(67.65%)이 투표한 결과, 찬성 890표(84.12%), 반대 156표(14.75%), 무효 12표(1.13%)로 당선됐다.

△사범대학 ‘한결 음다’ 정·김학용(컴퓨터교육 2), 부-정정훈(영어교육 2) 후보가 총 유권자 530명 중 454명(85.66%)이 투표해, 찬성 383표(86.56%), 반대 59표(13%), 무

효 2표(0.44%)로 당선됐다.

△생명대학 ‘생기발랄’ 정·권영익(산업응용경제 4), 부-고용훈(식물자원환경 3) 후보가 총 유권자 491명 중 397명(80.86%)이 투표해, 찬성 315표(79.35%), 반대 79표(19.9%), 무효 3표(0.76%)로 당선됐다.

△해양대학 ‘아라주는’ 정·유병선(토목공학 3), 부-양건욱(환경공학 2)후보가 총 유권자 782명 중 644

명(82.35%)이 투표한 결과, 찬성 591표(91.77%), 반대 39표(6.06%), 무효 14표(2.17%)로 당선됐다.

△자연대학 ‘마이피플’ 정·고현규(체육 3), 부-박지혜(수학 3) 후보가 총 유권자 1167명 중 1025명(87.83%)이 투표한 결과, 총 500표(48.78%)를 획득해 489표(47.7%)를 획득한 ‘자이언트’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36표(3.51%)로 나타났다.

△공과대학 ‘친한친구’ 정·김수철(통신공학 3), 부-이동현(전기공학 2) 후보가 총 유권자 1288명 중 940명(72.98%)이 투표해, 찬성 744표(79.15%), 반대 133표(14.15%), 무효 63표(6.7%)로 당선됐다.

△수의과대학 ‘알파벳’ 정·강정훈(수의학과 1), 부-고현철(수의학과 1) 후보가 총 유권자 257명 중 239명(93%)이 투표해, 찬성 208표(87.03%), 반대 30표(12.55%), 무효 1표(0.42%)로 당선됐다.

△야간간좌부 ‘너를위해’ 정·임성민(야 관광경영 2), 부-김동민(야 관광경영 2)후보가 총 유권자 228명 중 114명(50%)이 투표한 결과, 찬성 99표(86.84%), 반대 14표(12.28%), 무효 1표(0.88%)로 당선됐다.

김소영 기자

정책토론회인가 단합대회인가?

기자수첩

학생들에게 학생자치기구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할 기회를 주는 정책토론회. 그러나 지난 9일 열린 정책토론회장을 찾은 기자는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과 후보자들이 함께 소통해야 할 자리에, 일반학생들은 거의 없고 선거운동원들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정책토론회가 이 지경에 다다른 데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중앙선관위의 책임이 적지 않다.

선거시행세칙 13조 <선관위의 의무>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우들이 올바른 투표를 행사하고 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선관위는 과연 위 조항의 ‘올바른 의견 수렴과 참



지난 12일 법정대 중앙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이 가득 모여 있다.

여’를 보장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토론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여졌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정작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았으며, 갑작스럽게 변경된 시간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9

일 12시에 열린 총학생회 2차 정책토론회는 본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변경된 시간은 자유계시판은 물론 총대의원회 홈페이지 등 아무런 곳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기자 또한 변경된 시간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급하게 토론회장을 찾았다.

그렇지만 이 ‘밀실’ 정책토론회는 일반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이뤄냈다.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건 일반학생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이었다. 강당은 형형색색 물결로 일렁였다. 강연장은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선본의 패기를 확인하는 유세장에 가까웠다. 언제부터 정책토론회에 그 본질적 의미를 잃고 이런 ‘트렌드’로 변모한 것인지 참 궁금하다.

기자 옆에 앉아 총학생회 후보자들의 말을 들던 인문대학의 한 학생은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며 “공약을 분석해보기 위해 참여했는데, 학생들에게 정책을 알리기보다 선본의 응원무대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반학생들이 후보자들에게 질의할 기회도 마련되지 않았다. 정책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공약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자리다. 그러나 질의응답의 기회는 중앙자치기구 임원, 각 단과대학 대표들에게만 주어졌다. 선관위의 의무인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했는지 의문이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정책토론회. 올해 학생회 당선자들은 본지와외의 후보자 인터뷰에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내년 중앙선관위만은 소통의 가치를 살린 토론회로 마련해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명지 기자



지난 9일 자연대학에서 열린 취업캠프에서 학생들이 특강을 듣고 있다.

자연대 취업캠프 성황리 개최

자연과학대학(학장 김철수)은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9일 취업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관한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캠프는 학과별로 취업동문 및 기업체실무팀을 멘토로 지정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입사서류 작성법 및 면접대응 요령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제1강에서는 HMC투자증권의 김형근 차장이 2011년 채용시장 전망 및 직무별 취업특강을 열었다. 제2강

에서는 사회적혁신 기업의 사례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향기나는 사람들’의 임정택씨의 강연을 했다. 그 이후로는 각 과별로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취업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준비과정 및 전략을 소개해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3장에서는 기업체 임원 초청 특강으로 (주)넥슨의 김미정 이사를 초대하여 강연했다. 학생들은 이번 캠프를 통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현아 수습기자

국공인합학 주관의 ‘2011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저온 플라즈마 방전 하에서의’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의 성과로 LED 등 산업 현장에 쓰이는 형광체를 기존의 기술보다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양미연(생물학과 석사과정)씨는 지난달 9일부터 6일간 전남 여수에 서 진행된 ‘제6차 아시아-태평양 조류학회(APPF)’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논문에서 양씨는 홍조류 비단팡사속(Martensia)의 유전적 다양성을 밝히고 새로운 계통 유연관계를 확립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문정은(생활환경복지학부 박사과정 수료)씨는 지난달 29일 경일대에서 개최한 ‘대학건축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제주지역 건축물 미술 작품의 설치 현황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영 기자

부속시설 탐방 <9> 리걸클리닉

무료법률상담 활발... 찾아가는 상담봉사도 인기

법률지식이 부족한 학생이나 도민들은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려 해도 비용 걱정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 법에 무지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같은 편이 되어주는 곳이 제주대에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3층에 위치한 리걸클리닉(소장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2006년에 법률상담센터로 설립된 리걸클리닉은 학생과 교직원,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급하고 무료상담하고 있다. 이곳은 실제 소송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회봉사를 통한 법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리걸클리닉은 일종의 공익법률사무소라 할 수 있다.

리걸클리닉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부 교수들과 도내 자문 변호사들이 민사,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노동, 세무, 국제거래,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법령해석 및 조례제정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은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면상담이나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작년에 학생들이 교통사고 도주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쟁을 조정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시킨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 학기에 두 번 이뤄지는 외부로 상담봉사활동을 가면 지역주민들이 찾아와 복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지난 8월에는 해군기지문제로 생긴 주민들의 법률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강정마을을 찾았다. 또 오는 25일은 대정읍을 찾아 법률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리걸클리닉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권리신장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외국인조례 제정 세미나를 열었다. 그 노력의 결과 올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통과되는 쾌거가 있었다.

또 학교 밖으로 나가 지역주민이나 사회에서 생활법률 강의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생



지난달 28일 추자도에서 리걸클리닉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활법률총서’ 등 각종 서적을 발간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박선아 교수는 “리걸클리닉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라 실질적으로 법조업무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소속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병원처럼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 외부에 보다 전문적인 형태로 제주대학교 부설 리걸클리닉을 설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뉴스 클리핑



영자신문사, 영어말하기대회 개최

‘제32회 영어말하기 대회’가 언론미디어센터(주간 고호성 교수) 영자신문사 주최로 지난 11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중등부·고등부·대학부 순으로 진행됐으며, 1부 에세이 발표, 2부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대회 수상자 명단이다. △

상 김은지(영어영문 1), 장려상 김태현(관광경영 3), △고등부=금상 오재균(대기고 1), 은상 양소희(제주외고 2), 동상 신희연(제주외고 1), 장려상 강승헌(오현고 1), △중등부=금상 이수연(한라중 1), 은상 한정민(서귀포여중 2), 동상 신희재(신성여중 2), 장려상 김용수(한국국제학교 4), 은상 최충민(초등교육 2), 동

아라토론대회

오는 18일까지 참가모집

제2회 아라토론대회가 기초교육원 주최로 오는 25일 열린다.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제주대 학부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휴학생은 참가할 수 없다.

대회는 예선 1차 서류심사와 본선 토론회로 이뤄지며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선 논제는 반값 등록금과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며 본선 논제는 공모를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3명이 한 팀을 이뤄 참가신청서류(참가신청서, 팀별 1부, 논술문 1부 각 1부)를 작성해 오는 18일까지 기초교육원을 방문하거나 메일(iletnl@jejuu.ac.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2팀에게는 제주대 총장상과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상 4팀, 장려상 6팀, 스피커상 4명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한다.

문의:기초교육원(754-2036-7)

부문수, 이인경 산학협력단 직원 입상

지난 3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한 ‘제1회 우수 연구관리 학습자 선발 콘테스트(추천 한국연구재단)’에서 산학협력단 부문수, 이인경씨가 입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연구관리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활성화와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자질적 학습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해 경합



부문수씨

이인경씨

을 벌였으며, 총 11명이 입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10일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이뤄졌다.

‘Pride Up’ 제대인 자랑거리 찾기 공모

‘Pride Up 제대인 자랑거리 찾기’ 공모전이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글로벌한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으로 성장하는 제주대의 모습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애교심을 함양시킬 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접수방법은 전자문서시스템 공

지사항 또는 대학 홈페이지 제주대소식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jjini@jejuu.ac.kr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으로는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30만원, 장려금 3명 1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작은 다음달 8일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홍보출판센터(☎764-2046)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조릿대 화장품·음료 등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

특성과 사업단 현장 <5> 제주조릿대 RIS 사업단

가뭄이 들 때면 시들기 전에 꽃과 열매를 맺고 생을 마감하는 식물, 제주조릿대. 예로부터 가뭄이 오면 사람들은 보리쌀과 비슷하게 생긴 조릿대의 열매를 먹으며 끼니를 해결했다고 한다. 제주의 강한 바람과 한라산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100여년간 강한 생명력을 이어가는 제주조릿대는 가뭄이 오면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주고 시든다. 제주조릿대는 특유의 강한 생명력으로 서식지내에 다른 종의 식물의 생육을 억제해 유해식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뛰어난 약리작용 덕분에 제주에서 가장 풍부한 산림자원으로서 각광 받고 있다.

제주조릿대 RIS 사업단(단장 김세제 생물학과 교수, 이하 사업단)은 제주조릿대를 활용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조릿대 상품화 기술지원, 마케팅, 기업지원, 인력양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해부터 지식경제

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지역연구 산업 진흥사업에 선정돼 연간 약 6억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참여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와 (주)제주노깬, (주)건풍바이오, (주)롯데가 있다.

제주조릿대는 제주에서 가장 풍부한 산림 자원이지만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조릿대 잎은 엽록소, 미네랄, 비타민 등 식물성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뛰어난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다. 제주조릿대의 주요 약리작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비만, 암, 간 기능, 이노작용, 피부질환 개선, 혈액정화 작용, 면역력 증강, 임신구토 완화 등이 알려져 있다. 사업단은 제주조릿대의 뛰어난 효능을 발견하고, 제주조릿대를 더 이상 한라산의 골칫덩이가 아닌 고부가가치 소재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세제 단장은 “제주조릿대는 고전의학에서도 성인병 등 여러 부분에 효능이 있다

고 기록돼 있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지 않았던 조릿대의 효능을 연구해본 결과 실제로 여러 방면에서 효능이 좋아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단에서는 제주조릿대의 약리작용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관련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조릿대는 뛰어난 효능 덕분에 사업단의 지원 속에 식품, 화장품, 건축자재 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주)제주노깬에서는 제주의 자생식물을 이용한 제품개발과 기능성식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특히 제주조릿대의 기능성을 활용한 기능성제품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제주조릿대의 주요 약리작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비만, 암, 간 기능, 이노작용, 피부질환 개선, 혈액정화 작용, 면역력 증강, 임신구토 완화 등이 알려져 있다. 사업단은 제주조릿대의 뛰어난 효능을 발견하고, 제주조릿대를 더 이상 한라산의 골칫덩이가 아닌 고부가가치 소재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세제 단장은 “제주조릿대는 고전의학에서도 성인병 등 여러 부분에 효능이 있다

드인 ‘헬스셋’으로 유통된다.

김 단장은 “매출부분에서는 조릿대 관련 음료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올레전기 축제에서도 올레꾼들에게 조릿대차 시제품을 나눠주며 제주조릿대를 홍보하는 등 마케팅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온라인에서도 제주조릿대 RIS 사업단 홈페이지(<http://jejusasa.co.kr>)를 비롯해 블로그(<http://blog.naver.com/jejusasa>)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Jejususaris>)을 통해 대중에게 대가서고 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에게 제주조릿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조릿대 상품에 대한 안내도 진행해 시대에 발맞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주산 조릿대의 지리적표시제를 인증받기 위해 조릿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아서 제주조릿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 지리적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산 조릿대는 산업



지난해 10월 9일 남산로 한옥마을에서 제주조릿대 RIS사업단이 마련한 제주조릿대 차 제작 및 시음회가 열렸다.

단의 노력으로 지리적표시를 인정받아 ‘제주’ 조릿대라는 명칭을 획득했다.

사업단은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세제 단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증이 되면 각종 상품에 제주조릿대의 효능을 명시할 수 있어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인증이 되면 제주조릿대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산림자원의 효자상품으로 다시 태어

고홍희 기자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는 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6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라

열정과 도전

오은선 산악인

수원대 산악부 출신이다. 1993년에는 서울과학교육원 전산직 공무원이었으나, 에베레스트 등정 여성 산악인 대원에 뽑힌 뒤 산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2001년에서 2004년까지 7대륙 최고봉 등반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돈 후, 8000m급 등반에 자신감이 붙어 히말라야 14좌에 도전했다. 14좌 등반을 위한 17년간의 고행이 시작된 셈이다. 산을 향한 열정에는 밥줄도 상관없었다. 처음부터 14좌 정복이 목표는 아니었다. 기회가 날 때마다 한 산 한 산을 뽐내었다.

히말라야 14좌 등정이 대단한 기록은 아니다. 1986년 이탈리아 출신의 라인홀트 메스너가 인류 최초로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이후 히말라야 8000m 14좌의 신비는 사실 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성 산악인들은 단독 등정, 무산소 등정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홍길, 고 박영석, 한완용씨 등 3명이 먼저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나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랐을 뿐이다. 그들의 발자취가 선명해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 신이 허락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14좌 완등을 이뤄낸 데는 도전정신과 강철 같은 의지, 강한 승부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산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산은 자연과의 싸움이다. 낯선 곳에서의 고독함과 외로움, 눈사태와 심한 눈보라와 눈의 반사로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보이는 화이트아웃,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인 크레바스 등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위험, 마의 구간, 날씨에 대한 기다림 등이 그렇다. 그렇게 17년 동안 14좌를 완등하기까지 히말라야 산맥을 20여회 넘었다. 에베레스트(2004년)와 K2(2007년) 등정 때 2번 빠고는 산소를 안 썼다. 그때만 해도 두 봉우리는 산소를 안 쓰면 죽는 줄 알았다. 그때 다른 나라 여성 산악인들이 무산소로 오르는 것을 알았다.

지난해 4월 히말라야 8000m 14좌 중 마지막으로 정복한 안나푸르나 등정할 때 KBS 중계팀이 함께 올라 역사적인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당시 50여명의 스태프가 함께 했다. 이들이 두 달 정도 함께 생활하기 위한 물량과 실시간 생중계를 위한 방송장비만 20톤에 이르렀다. 새벽 5시 기상, 오전 7시 출발 후 8시간에서 10시간을 등정하는 강행군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바닥이 2~30m 깊이로 갈라지는 크레바스와 집채만 한 눈덩이가 떨어지는 눈사태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다. 게다가 안나푸르나는 언제든 지 떨어질 수 있는 눈사태로 악명 높은 곳이였다. 하루라도 먼저 정상에 서겠다고 베이



오은선 산악인

스캅프에서 이를 먼저 나선 것이 오산이었다. 오금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추위 등정을 포기해야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 때 내 옆에 나타난 것은 산 등정 때 언제나 내 뒤에서 묵묵히 걸어오던 폴란드의 여성 산악인이었다. ‘긴가’라는 이 여성 등반가가 거북이걸음만큼 느린데도 계속 앞으로 나가 나를 앞질렀다. 너무 성급했던 내 자신을 반성했고 그 때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등정을 시도할 수 있었다. 히말라야 등반 중 유념했던 것이 욕심을 내지 말자는 것이었다. 마음이 발걸음보다 앞서 가면 안 된다. 발보다 마음이 한 걸음 뒤에서 쫓아가면 정신이 어느덧 생각지도 못한 순간 나타난다. 마음을 추스르고 ‘젯 먹던 힘까지 쏟아내’ 안나푸르나 정상에 올랐다. 세 명이 함께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욕심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환희를 상상해서는 정상에 설 수 없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욕심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환희에 젖어선 안 된다. 목표에 다가서기 위한 확실한 경로와 방법을 정하고 자기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가지려 노력해야 한다. 꿈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 아니다.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가져야 할 프로정신

마해영 야구 해설위원

아마시절 박찬호 선수와 함께 국가대표 생활을 했었다. 당시 내가 대학 4학년, 박찬호 선수가 대학 1학년이었다. 고참인 나와 막내인 박찬호 선수가 호주에서 열린 국가대표 경기 일정 내내 한 방에서 지냈다. 그때도 박찬호 선수는 꿈이 광장히 좋아 같이 있을 때 나는 옷을 벗지 못할 정도였다. 경기 후 내가 먼저 샤워를 하고 박찬호 선수 차례가 되자, 찬달과 뜨거운 물을 차례로 받아 냉온탕을 몇 차례 오가는 모습을 보았다. 급격한 온도 차이에 적응하기 위해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타박상 약 등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부위에 바르고, 팔굽혀 펴기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었다. 박 선수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팔굽혀 펴기를 한다. 박찬호 선수의 근력은 타고난 게 아니었다. 평소 꾸준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선수라는 인상을 받았다.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에서 선수협의회를 결성하려다 2000년 삼성으로 트레이드 됐다. 삼성에서 3년 동안 이승엽 선수와 함께 활동했다. 3년 동안 홈런개수와 타점, 타율 등 무엇 하나 이승엽 선수를 이기지 못했다. 이승엽 선수는 1등 성적에 만족하는 법이 없었다. 2001년 내가 홈런 30개를 쳤다. 이승엽 선수는 39개를 쳤다. 그러고도 나보고 자신의 타격 폼을 지적해달라고 했다. 나는 ‘바람이 타격 폼이 좋다’고 했지만 이승엽 선수는 꾸준한 연습 끝에 타격 폼을 바꾼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홈런을 더 쳐낸다. 타자들이 시합전 훈련을 위해 30분 정도 경기장에 더 빨리 오는데, 이승엽 선수는 언제나 1시간 일찍 도착했다.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했음에도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잘 하려고 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기 전 박찬호의 자기 관리와 이승엽의 최고를 위한 집념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고등학교 팀을 졸업해서 프로야구선수 지명을 기다리는 선수가 한 해에 10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0명만이 프로에 입단한다. 마찬가지로 매년 100명은 야구장을 떠나게 된다. 여러분이 야구장을 떠나는 100명 중 기억하는 이름이 얼마나 될까. 결국 국내 프로야구는 100대 1의 경쟁이라고 생각한다. 선수가 성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선수로서 부상을 당하면 끝이다. 감독의 성에 안착하거나 눈 밖에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1995년 처음 롯데 자이언츠에 함께 입단한 선수들이 은퇴할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프로 야구선수에게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 성공 아니면 실패다. 그러나 성공에도 비결이 있다.



마해영 야구 해설위원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야구 선수들도 부상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언제나 중요한 경기에 앞서 100% 자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진정한 프로선수다. 하지만 일부 선수는 시합 전날까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 언제나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았을 때 급하게 힘을 쓰면 부상을 당하기 쉽다. 100m를 달려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기 싫어서 급하게 달린다. 모든 부상의 70% 이상은 철저한 준비와 자기관리 부족이다.

요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다. 바로 프로선수가 되는 것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운동하는 어린 선수들이 많다. 이들은 입단 초기 3~4억 정도를 받는데, 이를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부모 빚을 갚는데 썼다고 한다. 집에 쌓여진 빚을 갚고, 집을 사는데 돈을 쓴 이들은 졸지에 집안의 가장이 된다. 프로 정신이 제대로 생기기도 전에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기만족에 자만심에 빠지고 술과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는 등 자기관리를 못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경기에 100% 전력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한 해에 100경기 이상을 해설하다보면 타석에 들어선 타자의 표정만 봐도 승패를 가늠할 수 있다. 타자가 불안해하면 이미 절반은 진 것이다. 페널티를 하는데 커져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가 ‘나는 오른쪽 구석에 떨어질까 세리머니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골을 못 넣으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A급 선수는 주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며 긴장감을 못 느끼고, B급 선수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한다. 프로선수들 사회인이든 몸 건강과 함께 정신이 건강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효과적인 스피치는 특별한 무기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명품 스피치

성연미 봄은커뮤니케이션 대표

대학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푹 빠져들었다. 졸업 후에도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KBS 공채 12기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BBS(불교방송) 아나운서를 지냈다. 명품 스피치는 상황에 맞는 말, 정확한 정보전달, 마음이 담긴 말,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배려를 통해 완성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 음성, 내용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스피치를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나의 교육철학은 아무리 스펠이 화려해도 인성이 먼저다. 아나운서의 사명은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 한 나라의 문화를 대변하는 대변자로 언어와 문화의 유행을 이끌게 된다. 또한 다양한 계층에게 전달하는 만큼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감이 중요한 자질로 꼽힌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성이 먼저야 하며, 최종 목표는 사회의 빛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국 아나운서로 발탁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유명한 아나운서들도 처음에는 아마추어의 느낌이 나는 대학생일 뿐이다. 아나운서 스피치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이 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 스피치가 달라지면서 뉘앙스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목소리에 힘이 생기면서 각각의 성향에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커졌다. 스피치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말만 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간단한 몇 가지 원칙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성공적인 스피치는 정보만이 아닌 마음도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스피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공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섬김의 자세를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김연아의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일반 아나운서의 스피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예로 들어보자. 아나운서 스피치의 공통점은 이미지가 굉장히 밝고, 음성이 경쾌해 마치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느껴진다. 이들은 또 항상 희망과 기원, 바람을 이야기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스피치에선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지고 음성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 명품 스피치가 있다면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졸품 스피치도 없다. 눈이 예쁘다고 말했는데, ‘코는 예쁘지 않잖아 말인가요?’ 라고 부정적으로 반문하거나 등감에 그치는 말들이 여기에 해당



성연미 봄은커뮤니케이션 대표

한다. 명품 스피치의 핵심은 공감 능력이다. 상황에 맞는 음계와 강세를 선택해 정확한 정보에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야 한다.

아나운서들이 경감한 외모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 있다. 언어에는 보이는 언어(시각)와 들리는 언어(청각), 내용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중 보이는 부분은 전달하는 내용의 55%를 차지한다. 음성 언어가 38%, 내용적 언어는 7%에 불과하다. 시각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전달력은 떨어진다. 시각 언어는 시선과 표정, 피부, 치아, 의상, 몸짓 등 종합적인 이미지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다른 언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음성에서는 그 사람의 운명도 볼 수 있다. 음성의 좋고 나쁜 기준은 뭘까. ‘공명’과 음계·배려’ 세 가지 기준을 들 수 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한 끝에 얻어지는 공명음은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효과가 있다. 음의 높낮이인 음계 역시 의도대로 사용한다면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도·레’ 음은 진지하고 심각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고, ‘미’ 음은 신뢰와 교양을 전달하는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 경쾌한 내용의 오락·연예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파·솔’을 선호한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쓰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도·레’는 딱딱하고 음울해 보이고, ‘파·솔’은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 받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골라 써야 한다.

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피치는 내 인생의 운명까지도 달라지게 한다. 효과적인 스피치는 자신만의 특별한 무기가 된다. 많은 무기를 장착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실현해가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디자인해야 한다.

해외연수 통한 유타대 비즐리 교수와의 인연, 20여년간 학문적 교감

수학은 아직도 어려워… 학생들에게 ‘참 삶의 길’ 가르치고 싶어

학술기고

어느 수학자의 해외 연수기

나는 83년부터 제주대학교에 근무하며, 교수 본연의 업무인 연구, 교육, 봉사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 올해는 안식년을 맞아 서울대학교에 초빙교수로 와서 책도 읽고 글도 쓰면서 여유있게 보내게 되었다. 돌아보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더구나 나에게 배우고 졸업한 제자들이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한편 나 자신이 학과, 대학, 교회', 나아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나의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며,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연구하는 일로 귀착이 되는데, 연구를 생각하면 해외연수의 순간들이 떠오른다. 그래서 나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좋은 연구 동료들 만난 것과 연구과제들을 얻은 것들에 대하여 나누고자 한다.

(1) 수학은 어려워

수학을 공부해보니, 아는 것은 수학만큼 쉬운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은 수학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예컨대 수학논문을 발표하는 학회를 가보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을 들을 때가 자주 있는데, 이런 때는 정말 웃음만 나온다.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말하는 발표자의 말은 말이 아니라 울리는 소리요, 의미없는 중얼거림이며, 공허로 다가왔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수학이 어렵고 또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 분야

그래도 수학교수들은 그 어려운 수학을 연구하여,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잘 할 수 있어서 연구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한 두 분야를 전공으로 개척하며 그 분야의 연구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전공에 대하여 말하라 하면 자신만의 연구분야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아는 분야가 적고 그마저도 잘 알지 못하여 논문쓰기가 부담스럽고 힘들게 여기면서도, 나름대로 두 가지 분야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연구자의 기쁨을 즐기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쓴 Minimum Permanent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Linear Preserver Problems에 관한 연구이다. 내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를 잠시 언급하자.

(3) Permanents 연구

내가 박사과정을 수료하던 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선배님*이 돌아오셔서 나는 그 분에게 논문지도도를 부탁하였다. 귀국 직후라 바쁜신 선배님은 Permanents라는 책을 전해주시며 복사하여 읽고 만나자고 하셨다. 이 책은 그동안의 permanent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집대성한 대학원용 책으로서 읽기가 좀 어려웠다. 본문을 자세히 읽고도 문제를 풀어보지 못 푸는 것이 많았었다. 그렇지만, 행렬 이론이라서 실수상의 행렬에제를 만들어 이론에 맞추어 보

며 이해가 되면 넘어가는 식으로 읽었다. 다음으로는 전해 받은 논문을 읽으며 예제를 만들어 이해를 하면서 내가 연구할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다. 한 2년 공부하니 문제가 보였고, 논문을 쓰게 되었다. 앞선 연구자*의 정리를 확장하는 연구로 논문을 써서 그 연구자에게 편지로 보내었더니 2달쯤 지나서 Linear Algebra and Its Applications에 게재를 승인한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게 되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나는 이 논문을 연구할 당시에는 자나 깨나 그 문제만 생각하는, 정말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한 때였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더 큰 문제를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점점 축소해서 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조금씩 확장해 나갔는데, 어느 날, 상당한 결과가 나와서 즐거워하며 논문을 완성하여 투고하였는데 국제학술지에 처음 논문이 실리게 된 나의 기쁨은 대단히 컸다.

(4) Utah State University 해외연수-LG 연암문화재단 지원

그 후에도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하여 몇 편의 논문을 더 썼을 때, LG 연암문화재단의 “교수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주요 일간지에 공고되었다. 이에 지원하였다

뜨거운 향학열 지닌 수학자와의 만남

비즐리 교수의 연구 격려 든든

해외논문 발표 통해 학문업적 쌓여

니 의외로 선정되어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다. 제1회 공모에 선정된 까닭에 나도 매우 기뻐지지만, 이로 인하여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기도 하여,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연암재단이사장께 감사하였고, 또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행복감을 느꼈다.

이 소중한 해외연수의 1년을 어디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지 생각하며 몇 곳을 알아보다가, 나의 박사학위 논문을 쓴 permanent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신 Beasley 교수가 계시는 미국 Utah State University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Beasley 교수는 우수한 논문을 많이 발표하셔서 대학의 Research Fellow를 받으셨다. 그분의 요청으로 나는 연수기간 중에 집세를 수학과로부터 지원받았다. 그 외에도 많은 혜택을 받으며 나의 첫 해외연수는 시작되었다. 연수비의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었기에 활기찬 마음으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갔다. 유타 주립대학에 가서 정착하는 데는 미리 연락이 된 한인 교회의 목사님*과 교인들의 도움이

컸다. 학교 내의 아파트 관련 업무, 아들을 학교에 전학을 시키는 일과 학교에 데리고 다니며 통역하는 일, 차량 구입과 면허증 취득하기, Social Security Number 받기, 아내와 시장 다니며 영어로 물품 이름 익히는 일 등 모든 것이 생소하였지만, 곧 적응이 되었다. 더욱 좋았던 것은, Beasley 교수에게는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과 중국인 박사과정 학생이 있어서 함께 세미나를 하였는데, 영어가 잘 안 들리는 나에게 한국 학생이 많은 도움을 준 것이었다. 그래서 Beasley 교수가 발표한 최근의 논문들과 그분이 추천해 주는 논문들을 읽으며, 그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연구주제를 배우고 익히는 유익한 연수기간이 흘러갔다.

(5) 선형보존자 문제 연구

당시에 Beasley 교수는 행렬의 특성을 보존하는 선형연산자를 규명하는 연구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연구하도록 권유하시며 지도하였다. 그래서 나도 그분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던 나에게 Beasley 교수의 논문은 아주 생소하였다. 그렇지만, 3개월 쯤 지나서 Alabama주의 Auburn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Linear Algebra Society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이 분야의 논문을 발표하시는 많은 분들이 Beasley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며 발표하는 것

을 보게 되었다.

한편 C.K. Li 교수*는 현재까지의 Linear Preserver Problems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들 약 180여 편을 수집하여 학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 연구주제를 활성화 할 방안을 모색하자 주장하였다. 그 목록표를 보니, Beasley 교수의 논문이 약 30여 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가 상당히 활발한 연구주제이며, Beasley 교수가 연구자들로부터 상당히 인정받는 분야임을 알게 되어 나는 이 분야를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연수대학 및 초청교수 선정이 참 잘 된 것임을 깨달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Beasley 교수님은 상당히 인정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관심을 가져 주셨고 나의 서투른 영어로 하는 세미나 발표에도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다. 반년동안 계속된 세미나를 통하여 읽은 논문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문제들을 찾게 되었다. 내가 작은 결과를 몇 가지 얻어서 보여드리며 공저의 논문을 쓸 수 있을가를 여쭙었다. 교수님은 나의 결과를 칭찬하시며 자신



송석준 교수와 Beasley교수가 Utah State University 수학과 건물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몇 가지 정리를 덧붙여도 좋겠는지 물으셨다. 나는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고 말하여, 그 편의 연구결과를 첨부하여 공저 논문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지라 열심히 수정하고 타이핑하여 Linear and Multilinear 논문집에 투고하여 게재승인 소식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수한 교수님과의 공저논문을 발표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Beasley 교수는 내가 Linear Algebra and Its Applications에 논문을 발표했으니, Linear and Multilinear에도 논문을 발표해야 선형대 수학자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 논문집을 추천하셨다. 이제 나는 선형대수학자가 된 것인가 하며 스스로 대견해 하기도 하였다.

이 1년의 해외연수는 나와 가족에게 가장 행복했던 한해로 기억되고 있다. 나는 이 연수를 통하여 선형대 수학 분야의 핵심연구과제의 한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가족에게는 적절한 연수비용의 제공으로, 미국의 동부(뉴욕, 워싱턴DC, 루레이 등굴, 나이가이라 등)와 서부(그랜드캐년, 옐로우스톤 외 국립공원들), 남부를 오가며, 다양한 여행과 해외에서의 삶을 즐긴 한해였기 때문이다.

(6)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교류

해외연수 기간 중에 나는 International Linear Algebra Society (ILAS)에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그곳에서 몇 명의 저명한 교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특히 Richard A. Brualdi 교수를 만나서 인사를 드렸더니 매우 반가워하시며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기뻐다. 또한 그 학회에서 초청강연을 하신 일본의 Ando교수와 독일의 Elsner교수와 인사를 나누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2년 후에 Ando교수의 초청으로 일본 Hokkaido 대학에 가족과 함께 연수를 가게 되었다. 과학재단과 일본의 JSPS 지원으로 여름 방학 중에 Hokkaido대학에서 연구도 하고 온천욕과 관광을 누리며 즐거운 방학을 보냈다. 다시 2년 후에는 Elsner교수의 초청으로 독일의 Bielefeld대학에 가족과 함께 다녀왔다. 과학재단과 독일의 DFG의 지원으로 겨울방학동안에 갔는데, 연구도 하고 서 유럽을 여행하며 즐거운 방학을 보냈다. 그 후에 나는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과 인도

통계연구소*, 스페인 응용물리연구소*, 프랑스 Rouen대학, 호주 Monash대학*에, 방학을 이용하여 과학재단 또는 ASEM재단의 지원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 연수들은 나에게 다양한 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공동연구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 연구들은 나의 연구 분야를 조금씩 넓혀주었다.

그렇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나의 처음 해외연수 때 초청자가 되어주시고 지원해주신 Beasley교수와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그분과 교류하며, 상호 방문하며, 여러 편의 공동논문을 쓰고 있다. 국제협동과제를 수행할 때는 그 분이 가까이 해외 연구자로서 파트너가 되어 주셨다. 또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Thematic Program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개월간 한국에 오셔서 제주대학에 머무르며 공동 연구를 해주셨다. 그리고 올해에는 다시 나를 초청해주셔서 여름방학 중에 Utah State University를 네 번째로 방문하여 공동연구를 하도록 도와주셨다.

나는 이 모든 해외연수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교수 본연의 업무를 즐겁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초빙교수로 와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큰은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기쁨, 관악산 옆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아내와 산책하는 즐거움, 그리고 서울대의 우수하고 친절한 교수들 및 매우 특강을 오시는 국내외 수학자들을 통하여 듣는 새로운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함께 감차하며 미흡하나마 나의 해외연수의 글을 접는다.

송석준(수학과) 교수

- 1) 장로로 시무하는 제주성안교회(담임 류정길 목사님)
- 2) 경북대의 황성근 교수
- 3) Richard A. Brualdi, Linear Algebra Appl.의 편집위원장이며 Wisconsin대학 교수
- 4) 미국 LOGAN동양선교교회 이두용 목사님
- 5) 미국 Williams & Mary대학 교수, Linear Algebra Appl.의 편집위원
- 6) Indian Statistics Institute(Delhi)의 R. B. Bapat (Linear Algebra Appl. 편집위원) 교수 초청
- 7) Instituto de Física Aplicada의 Luis Hernandez Encinas 교수 초청
- 8) Ian Wanless교수 초청
- 9) 관악구 낙성대동 212-1(담임 이규호 목사님)

이제 그리스, 중국신화가 아니라 제주신화다

영문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제주신화… “세계 속의 안목 얻는데 일조하고자 집필”

서평

『세계 속의 제주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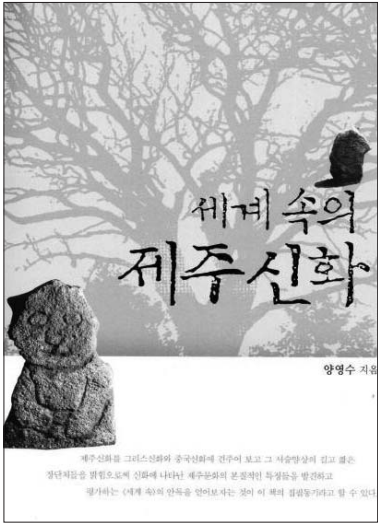
제주출신 영문학자 양영수의 신작 『세계 속의 제주신화』가 새로 나왔다. 그의 전작이 『D. H. 로렌스 문학의 해부』, 『영문학의 원류를 찾아서』, 『산업사회와 영국 소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류의 책들 대부분이 국문학자나 민속학자에 의해 쓰인다는 사실에 비추면, 이 책을 내면서 했을 저자의 고민도 만만치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당연히 외국문학도가 뜬금없이 제주신화를 다룬 책을 낸 이유에 대해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제주신화를 바라보는 ‘세계 속의 안목’을 얻는데 일조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문화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는 제주신화

에 대한 저자의 관심도 한 몫했을 것이 분명하다. 최근 제주신화의 상품화는 다소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화의 거리를 비롯한 거리문화상품 같이 무턱대고 신화소를 1:1 대입해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이라 선전하는 식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담당자들의 신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런 즈음에 제주신화를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제주의 신화를 제대로 아는 방법은 제주신화를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 가는 학문적 수양의 방법과 이를 멀리 떨어져 관조하며 남의 것과 비교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양영수의 책은 후자에 속한 책으로 영문학자가

바라본 제주신화를 그리스로마신화와 중국신화에 견주어 조목조목 세밀히 살피고 있다. 이는 국문학자나 민속학자들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시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또한, 나름대로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타 신화와 비교해 재미있게 풀어놓고 있는데, 세화리 분향당과 송당 분향당 신화에 남아 있는 모처혼적(母處婚的)과 모처혼(母處婚)을 통해 과거 제주의 혼인풍습을 추측하는 부분이나, 사랑하는 남성에게서 버림받은 여성이 보여주는 반응에서 제주여성들과 그리스 여성들의 태도 등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저자는 동양신화인 제주·중국의 신들이 가진 인간애와 그리스 신화속 신들의 비(非) 인간애를 비교하며 동양정신의 근본을 대립요소 간의 평화적인 공존으로, 서양은 대립요소들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중국·그리스 로마신화가 ‘평화-평정-투쟁’의 원리로 설

명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에 이른다. 제주신화는 주로 무속인들에 의해서 창작되었고, 그리스로마신화는 객관적인 시선을 견지한 작가들이, 중국신화는 통치계급의 문사들에 의해 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이들 창작 주체들의 특징이 신화 속에 담긴 것이라 주장한다. 선뜻 동의할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주장임이 분명하다. 이는 저자가 말하는 ‘평화-평정-투쟁’의 원리가 ‘제주 평화의 섬’을 지나치게 염두에 둔 결론이 아닌가 하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신화는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 어느 순간 기록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 속 화소들은 인간사회의 다양한 모순들을 상징으로 포괄한다. 신화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이를 문화콘텐츠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신화가 지닌 다양한 상징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화는 인간 공통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지역의 문화적 특징들



세계 속의 제주신화 양영수 지음

을 함께 아우른다. 그래서 타 지역의 신화와 우리의 신화를 비교하면서 ‘우리 것이 최고’라는 식의 결론을 맺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 책에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제7장에 실린 저자의 창작물 「설문대의 사랑」은 보느냐스다.

이창훈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한국문화스토리작가 협회 이사

1인 시위의 진화

“무관심 세상 깨우려 나섰다”



연극인 현애자(46)씨가 강정마을의 평화를 염원하며 행위예술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제주도청 앞에서 이색적인 1인 시위가 열렸다. 오전부터 내린 가랑비에도 아랑곳 않고 삼삼오오 도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12시께부터 제주 해군기지, 한미 FTA, 대학 등록금 문제 등과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행동이 눈에 띄는 것은 시위 주제와 방법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들은 팻말 들기, 줄넘기, 행위에 술 등 개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동참했다.

이번 1인 시위는 김민선(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씨의 제안으로 열렸다. 김씨는 지난달 10일부터 도청 앞에서 “강정 구럼비바위를 지켜달라”며 혼자 1인 시위를 하다 사회 현안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1인 시위를 벌여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는 “지역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혼자 외롭게 나서기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재밌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됐다”고 기획 동기를 밝혔다.

이날 하얀 소복을 입고 탈을 쓴 채 행위예술을 한 연극인 현애란(46)씨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강정에 가는 것 말고 내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다음 카페 ‘구럼비아 사랑해’ 자유게시판에서 형식 없는 1인 시위를 같이 하자’는 글을 보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도청 앞 김바닥 한구석에 천을 깔고 맨발로 행위예술을 선보였다. 어린아이를 형상화 한 인형을 안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다 하혈로 인해 피범벅된 채 “구럼비를 지켜주세요”라며 외쳤다.

다. 현씨는 “강정 구럼비는 여러 생명체를 안고 있는 모체와 같은 곳”이라며 “이런 곳을 부수는 행위는 자연의 모체를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해 외부에 의해 자궁이 파괴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퍼포먼스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동주(대학원 사회학과 박사수료)씨는 팻말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얼굴을 내민 채 도청 앞에 섰다. 김씨는 “오랫동안 대학에 다니다보니 한국사회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최고 자원은 인적자원인데 이를 키울 생각은 안하고 높은 등록금으로 학생들을 허덕이게 만든다”며 “학생들이 더 이상 저임금 노동시장인 ‘알바’에 내몰리지 않도록 등록금은 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각계에서 대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팻말을 들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혜(24)씨는 “FTA에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미국의 농산물은 대규모 농지에서 헬리콥터로 농약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무분별한 FTA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려는 우리 땅의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줄넘기를 하면서 ‘노인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청원하거나 팻말을 들고 ‘이시돌 목장 노동자 탄압’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이날 모인 사람들은 제주 지역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성미 기자

섬 속의 섬 <1>가파도



가파도에서는 외부의 풍경도 그림처럼 볼 수 있다. 기을 잡곡을 다 거두고 난 가파도 해안에서 바라본 바다와 산방산.

봄이면 청보리 초록물결... ‘가파도의 겨울’은 다른 손짓

제주는 아름다운 섬이다. 이 아름다운 섬에 여러 매력들을 지닌 부속도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섬 들엔 각각의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담기 위해 제주대신문에서 <섬 속의 섬> 연재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평평한 땅, 넉넉한 인심

대정읍 모슬포에서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파도는 제주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다. 마라도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만 최남단 섬의 위용에 가려 가파도는 그동안 찾는 이가 뜸한 섬이었다. 그러다 ‘1박 2일’을 통해 그동안 감춰왔던 가파도의 매력을 드러냈고 순식간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섬이 됐다.

태풍이 불면 못가고 날씨가 좋으면 가파도로 가는 배에 관광객이 붐비니 그 곳에 가려면 운이 따라야 한다. 운이 좋은 날 모슬포항에서 배로 20여분을 가면 섬에 닿는다.

가파도는 제주도의 부속 도서 중 네 번째로 큰 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형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20m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구릉이 없어 전체적으로 평평하기 때문이다.

바다 위로 납작 엎드린 것 같은 땅 위에서 사는 가파도 주민들은 그 지형만큼이나 마음도 넉넉하다. 마라도 주민과 가파도 주민

이 서로 술을 외상으로 먹다가 ‘값야도(가파도) 그만 말야도(마라도) 그만’이라서 섬 이름이 ‘가파도’라는 얘기가 돌아다닐 정도니 그 인심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물 한잔 얻어 마시려고 어느 집에 갔다가 한 할아버지가 그 집 부엌에서 삶은 ‘거북손’을 같이 내민다. 예의상 거절하니 자신은 이가 아파서 먹질 못하니 가져가서 먹으라며 이를 드러내 웃는다. 섬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런 인심과 마주하니 반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도 청춘인 섬

가파도에선 한달에 한번 마을회관에서 잔치를 연다. 보통은 22일에 하는데 그 전후로 날씨를 보고 바다에 나가기 곳에 날에 모인다. 이날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음식을 한 상 부려지게 차려 나뉘먹고 노래부르며 여흥을 즐긴다.

이날 잔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마을의 젊은 사람들 몫이다. 그런데 가파도에선 ‘젊은 사람’의 기준이 어느 곳과는 다르다.

“60대면 젊은거지. 우리 섬에선 70은 넘어서 노인 속에 끼야 말까인데.”

가파도 노인회장 박영복(76)씨는 70대인 자신도 노인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 자식들 몰고 나가고 직장엘 다녀도 손을 안벌려. 필요하면만 일하면 곡식이며 해산물이며 지천에 먹을 것을 잔뜩 얻을 수 있는데 웬돈 받아서 뭐해.”

가파도의 자연은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내준다. 어머니의 품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것이라 자연에서 내준 생산물을 채취해 먹는 노인은 청년이 된다.

“살았시는 살아진다”

낮에 가파도 바다에선 해녀들이 한창 물질을 한다. 바다 깊은 곳에 전복과 소라가 보이면 숨을 참고 단숨에 그곳까지 내려간다. 중간에 숨이 턱까지 밀려와도 참는다. 못 참고 물위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면 방금까지 보였던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죽을 듯 살 듯 바닷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제서야 큰 숨을 내 쉰다. 그 숨에선 “빠익”하는 애달픈 소리가 난다.

물질을 끝마친 해녀가 물위로 나왔다. 얼굴의 반 이상을 덮은 물안경 때문에 바닷속에서 가능하기 어려운 나이가 물에선 드러났다. 물안경을 벗은 얼굴에선 살아있는 세월만큼 주름이 패였고 등은 굽어 있었다.

라진옥(77)씨는 어릴 때부터 물질을 했다. 중문이 고향인 그녀는 물질을 하다 50여

년전에 중문으로 내려온 가파도 총각을 만났다. 제주 섬 처녀는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안의 섬이 궁금했다. 그 호기심엔 ‘여기 보다 더 낫겠지’ 하는 기대도 섞여 있었다.

중문에서 물질 하다 가파도로 시집은 처녀는 가파도에서도 해녀가 됐다. 어릴 적 바다보다 거친 가파도의 바다를 감내하다 훌쩍 반백년이 지났다.

“뭐 사는 게 별거 있어? 살다보면 살아가는 거지...”

물질하며 힘든 점은 없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가파도 해녀에게 물질은 곧 삶이었다. 200명 남짓한 마을 주민은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물질은 그들에게 ‘별 게’ 아닌 ‘일상’이다.

‘청보리축제’만 생각하면 오산

가파도는 4월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린다. 이 시기엔 가파도 전체에 청보리가 넘실대 눈을 호강시킨다. 초록물결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분위기에 젖어 절로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가파도를 생각하면 가파도 매력의 절반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가파도에선 전사시대 고인돌 유적지를 볼 수 있고 따치남지도 할 수 있다. 마을 설명을 원할 때 이장님께 부탁하면 친절히 답해준다. 가파도가 이것저것 주니 본섬에 올 땐 무거워 그리움을 흘리게 된다. 현성미 기자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3> 김미선 물드리네 대표

감빛, 쪽빛. 제주의 색을 물들이는 여자

작은 체구에 짧은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는 김미선 씨.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자연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햇살의 파스칼과 바람의 상쾌함이 그녀의 웃음에 그대로 배어났기 때문이다. 자연처럼 넉넉한 그녀는 한경면 낙천리에 위치한 물드리네에서 천연염색 작업을 한다.

“차 드실래요? 굴껍질차예요. 진피차라고도 하죠.”

밝은 노란색을 띤 차를 건네며 그녀는 대뜸 색 이야기를 꺼냈다.

“굴 껍질로도 여러가지 색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굴껍질의 노란색이 전부일거라 생각하지만 보통은 겨자색이 나와요.”

온종일 색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색에 대해 설명하는 게 질리지 않을까요 싶는데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생글거린다. 그 포트폴리오에는 색을 낸 원재료, 매염제, 천, 추출시간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천연염색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그녀가 태아였을 때부터 형성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녀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어렸을 때 딱히 꿈이 없었어요. 남들처럼 ‘커서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없었죠. 고등학생 때 딱 한번 ‘군인’이 되고 싶은 적은 있었는데 왜소해서 체격미달로 지원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이후로 뚜렷한 목표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꿈에 대해 조금증을 갖지 않았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고 지겨워지면 그만뒀다. 현대인들은 시간, 일, 월, 연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 ‘시간 중심적’ 삶이 아닌 ‘자기 마음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대학을 다녔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대학 졸업해서 뭘 해야지 하는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러다 고맙게도 대학에서 나를 잘라주더라고요.(웃음)”

20대 때 그녀가 대학을 등한시하면서 재미를 느꼈던 것은 ‘제주여민회’ 활동이

었다. 여성인 자신이 살아가면서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에 대해 함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벗이 생겨 재미를 느꼈다.

이 시기에 그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필요를 느껴 직업적으로 관광사진을 찍게 됐다. 기왕 찍는거 잘 해보자는 생각에 사진을 정식으로 배우게 됐다. 상업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사진을 배우려 했지만 정작 그녀가 배운 것은 ‘예술사진’이었다.

“예술사진 해보니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사진공방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전시회도 여러 번 했어요. 회원전도 하고, 개인전도 하고.”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예술사진에 발을 들인 그녀는 10년 동안 사진 작업을 했다. 그러다 그녀는 한계를 느끼고 삶 자체를 변화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떤 예술 분야건 어느 순간 ‘넘어야 할 벽’ 같은 게 느껴져요. 나는 그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제주시에서의 일상 생활조차도 지쳤어요. 조용히 재충전 하고 싶

었죠. 그래서 경마장 근처에 있는 시골마을로 가서 농사 지으며 살게 됐어요.”

제주시에서의 30대 초반까지의 삶이 단지 ‘하고 싶다’라는 욕구에 맞춰진 것이었다면, 그 이후의 시골에서의 삶은 자신의 욕구와 더불어 자연의 절기에 맞춰서 살게 됐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농기구를 챙기고 밭에 도착해 땅을 경작했다.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 동안에는 그녀도 부지런히 일하고 자연이 잠들면 그녀도 잠들었다.

농부로서 삶을 살던 그녀가 본격적으로 천연염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이후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농사를 지었던 터전을 떠나야 할 때가 되자 그녀는 주저 없이 그 곳을 떠났다. 그러면서 그녀는 또다시 자기 내부의 욕망에 귀 기울였다.

“농사일을 할 때 작업복을 만들어야 하니가 감물을 많이 들였는데 갈옷 만드는 과정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관두게 됐을 때 막연히 ‘천연염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김미선 씨가 천연염색공방 물드리네 전시실에서 자신이 만든 작품 옆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녀는 자연의 색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제주에서는 천연염색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 욕지를 돌아다니게 됐다.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끝에 지금의 스승인 조경래 신라대 교수를 만나게 됐다. 체계적으로 천연염색을 배우게 된 그녀는 자신의 작업공간이 필요했다.

20대 때부터 ‘같이 살자’는 말을 나눴던 6명의 벗들과 상의해 일조랑이 풍부한 제주 서쪽마을을 물색하다 2004년에 낙천리에 오게 됐다.

약 10년 동안 감빛, 쪽빛을 천에 수놓으며 행복해하고 있는 그녀에게 평생 천연염색을 하며 살 것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문했다. 자기는 그저 제주의 자연에서 색을 추출하는 작업이 즐거울 뿐이란단다.

제주가 허락한 너른 하늘을 품고 자기가 만든 색에 ‘제주의 별’을 포용하고 싶다고 했다. 제주의 자연이 걸로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듯 그 속 깊숙히 들어가 제주를 닮은 색을 뽑을 수 있기를 그녀는 오늘도 바란다고 했다. 현성미 기자



무론유설

강덕수
경영학과 교수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가 타계하고 난 뒤 10월 7일 대부분 일간지들은 스티브 잡스에 대한 특집을 내보내면서 2005년에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한 감동적인 연설에 대해서도 인용해서 보도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으며, 명언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간지에 나타난 스탠퍼드대 연설문에 대한 번역들을 보면 오역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한겨레의 1면 머리기사 첫단락에 나타난 번역문을 읽어 보자.

“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점을 잇는 데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앞을 보면서 점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뒤를 돌아보면서만 점을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 그 점들이 미래

일간지에 나타난 스티브 잡스 연설문 ‘오역 투성이’

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위의 기사가 무슨 내용인지 독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위의 연설에서 청중들에게 점을 잇는 데 대해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dot는 점이 아니라 ‘경험’, ‘사건’, ‘지식’, ‘상황’ 등등을 가리킨다. 또 “to connect the dots”는 숙어로써 ‘관계성을 가진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위의 원문 앞과 뒤에 나오는 글을 읽어 보면 to connect dots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스티브 잡스는 리드 칼리지에서 한 학기 공부하고, 18개월 동안 학점을 따지 않고 청강생으로서 수강하면서 글씨체를 강의하는 과목을 청강했다. 이 과목을 청강할 때는 아름다운 글씨체가 그냥 좋아서 수강했지만 그런 이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몰랐다. 그러나 이때 배운 지식이 나중에 매킨토시를 개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보다 먼저 최초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연설문에서 스티브잡스가 나타내고자한 의도는 글씨체를 배울 때는 그것이 미

래에 어떻게 활용 될지는 몰랐지만, 10년 후에 되돌아보니 그 글씨체가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뜻이다.

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애플 컴퓨터에서 쫓겨난 일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엔 창피하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애플에서 쫓겨난 일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최대의 고마운 일이었고 5년 후에 NeXT회사, 세계 최초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Pixar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멋진 여성(현재의 아내)과 만나 사랑에 빠질 수 있었다고 연설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dots를 뜻하고, 이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관련성을 한참 후에야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불교적인 면목을 짐작할 수 있을만한 대목이다.

10월 7일자 경향신문은 연설문의 같은 문장을 “앞을 내다보고 점을 연결할 수는 없다. 늘 돌아서야만 점은 연결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 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또한 연설문을 단순히 직역해 놓은 것이다. 무슨 뜻인지 독자들은 알 수 없는 노릇

이다.

서울경제는 “운명이 언뜻 관계없이 보이는 ‘점(dots)’들을 이어 하나의 일관된 선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오역하고 있다. 또 “To follow your heart”를 ‘심장을 따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heart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인 ‘심장’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 또는 ‘열정’ 등을 뜻한다.

또 연설문 맨 마지막에 스티브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생에게 stay hungry, stay foolish하라고 당부하고 연설을 끝낸다. 여기서 stay hungry는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이라는 뜻이 아니다. 새로운 경험, 지식, 상황 등을 갈구하라는 뜻이다. foolish도 “바보 같은”이라는 뜻이 아니고, 에디슨이 계란을 품고 있었듯이,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듯이 타인의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열정과 신념에 따라 모험을 감수하고 도전정신으로 살아가라는 뜻인 것이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늘 배고프게, 늘 바보같이”라고 오역해서 헤드라인으로 뽑는 실수를 했다.



특별기고

최규일
국교육과 명예교수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판단하여 결정(결심)할 때는 감(感)이 앞선다. 감-느낌이 와 달아야 한다. 팔의 표현을 빌리면 필(feel)이 와야 한다. 감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 일이 결정된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욕망이나 직감, 예감이 생기고, 일의 결과에 따라서 공감하기도 하고, 통감하기도 하며, 하는 일이 신날 때는 실감(實感)이나 영감(靈感)도 생기고, 영적 세계에서는 신비감이 감돌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무감(無感)일 수도 있다.

11월 2일 한글회관에서 국립국어원이 주관한 ‘표준 화법 보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날 있었던 ‘표준 화법 안(案)’의 문제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소감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말에 남편을 부르는 호칭을 ‘오빠’로 하느냐, ‘남편’으로 하느냐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남편을 ‘오빠’로 많이 부르니 언론의 언어 현실을 고려하여, ‘오빠’를 새로운 호칭어로 정하는 게다. 친족 간의 호칭

과 지칭을 가리키는 말들에서 어느 쪽을 표준 화법의 호칭어로 정하느냐가, 그날 토론 회의 화두(話頭)였다.

‘표준 화법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표준이어야 하며, 표준의 기준이 뚜렷해야 하고, ‘화법’이나, ‘어법’이나, 아니면 ‘언어 예절’이나 는 용어(명칭)도 전제되어야 하고, 화용론에서 ‘화법’을 다룬다면 문어(체) 보다는 구어(체)를 대상 범위로 삼아야 한다.

말 사용에는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써야 하는) ‘공적 언어’와 개인이 사석에서 말하는(써야하는) ‘사적 언어’가 있다. 응당 한 나라의 ‘표준 화법’이라면 공적 언어가 표준(말)이 되어야지 사적 언어가 표준이 될 수는 없다.

자타(自他)를 구별하여 부르는 게 친족 호칭이다. 혼인을 했어도 버젓이 자기 배우자를 ‘남편’으로 부르지 않고 ‘오빠’로 부른다면, 가령 연하의 남자가 누님뻘 대는 연상의 여인을 만나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을 때 자기 아내를 ‘누님/누나’로, 아니면 ‘언니’로 불러도 괜찮다는 말인가. 만일에 혼인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오빠’로 한다

오빠나, 남편이나 표준 화법 마련의 문제점

면, 남자는 자기 아내를 ‘누나’로, 때론 ‘언니’로 바꿔 불러야 하나. 한 번쯤은 예교로 봐 줄 수 있을 진 몰라도 양가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곤란하다. 이는 정말 가관이다. 칼로 물 베기요, 언어도단이다.

언어는 한 시대의 산물이다. 말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미거나 싫다하여 자기 얼굴을 내버릴 것인가.

아무리 시대 따라 언어가 변한다고 해도, 이는 우리의 언어 예절에 어긋난다. 이치에 맞지 않다. 어떤 이는 ‘마누라’와 ‘영감’이란 말이 남녀 언어 차별이라 하여 없애자는 주장이다. 이를 우기는 쪽 사람들은 우리말의 언어예절에 대 변혁이요, 혁신으로 여길지 모른다.

말은 먼저 쓰는(부르는) 사람이 임자다. 말하는 임자가 따로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에는 최소한의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이 있다.

나를 낳은 친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고, 며느리가가 친정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시댁 부모를 ‘아빠님, 어머님’으로 부를 줄 알아야(호칭을 구별할 줄 알아

야) 정말 교양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장인, 장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른다고 해서 팔이 붕이 되겠는가? 이는 엄연한 우리의 언어 예절이요,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예절은 일종의 질서이다.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스럽고 붕괴된다. 언어예절은 바로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야 언어가 바로 서게 된다.

언어현실을 고려하되 다수의 인종이 수용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다면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표준(말)’은 누구나 공감하는 원칙과 기준에 맞아야 한다. 한 나라의 언어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하고, 현실성과 이치에 맞는 것을 추구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아무리 언어현실을 존중하되 다수의 인종이 사용한다 해서 이치에 어긋남은 피해야 한다. 기준에 맞는 ‘표준 화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우리말과 우리글은 겨레의 빛이요 겨레의 얼이다.

무슨 호칭이나 지칭이든 따로 따로 그 낱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까? 우리말에서 왜 ‘남편’과 ‘오빠’란 말이 왜 존재하는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이벤트가 뭐길래



독짜기고

김은욱
언론홍보학과 1

2011년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4시10분경 세계7대자연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됐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은 관광산업 진흥뿐 아니라 한국관광의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언론에서는 말한다.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의문점이 있다. 먼저 주최지를 보면 권위 있는 기관이 아니다. 2007년 UN사무국 파트너십으로 ‘신 7개 불가사의’를 선정했으니 당시에도 유네스코가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고 오히려 ‘N7W’가 유산보호보다 상업적 이벤트에 치우친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투표방법과 선정 발표에서도 의문점이 제기된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화로 무제한 중복 투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투표를 살펴보면 투표는 일인당 한 표 또는 일인당 하루에 한 표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무제한 투표로 진행되는 경우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 할수록 유리해진다는데 선정 방식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또한 지금까지 투표결과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발표하고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

론과 정부에서는 국가적 행사로 몰아가려 하는가.

선정이 되기 전에는 버스는 물론이고 가는 곳곳마다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 글이 있어 매우 중요한 일처럼 보인다. 그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방식도 거의 강요성을 띄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무원들이 민사 제처두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길거리의 시민들을 붙잡고 여러번의 투표를 독려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린다.

선정이 되고나서 언론에서는 앞다퉂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제주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제주도의 관광과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4년 전 ‘신세계7대불가사의’도 선정된 폐투의 마추피추, 요르단 고대도시 페트라 선정 이후 관광객이 최대 75% 이상 급증한 사례를 들어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1조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미 제주도는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장세에 있다.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지출을 늘려 지역사회로 어떻게 환원시킬 것인가라는 궁극적 대책들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가할 관광객의 숫자에만 매몰돼 경제적 파급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생각한다.

제주삼다수의 주인답게 행동해야



독짜기고

오신항
언론홍보학과 1

최근 제주 삼다수 판매 협약상 계약 해지권을 (주)농심이 지속적으로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의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아 제주 지하수는 현재 대기업 소유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농심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으로 제주 지하수를 기업의 소유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2007년 (주)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 협약 체결 당시, (주)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이 계약일로부터 3년간 합의를 물량을 구매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조항은 마치 근대 조선사회의 ‘강화도 조약’과도 같은, 양 쪽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한 쪽만 이익을 취하게 하는 일종의 불평등 조약과도 같다.

농심은 제주도 삼다수 덕분에 음료부분에서 상위권에 진입 했다고 한다. 농심은 지속적으로 음료시장에서 상위권을 잡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으로 제주의 지하수를 자신들의 사적 재산처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 발 앞보해, (주)농심은 기업이니 영리 추구를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

약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무엇을 했는가. 단일한 태도로 있다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끌려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주삼다수는 제주 지하수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할 때에도 기업에 굽신거리는 태도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제 스스로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상황과 같다.

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제주도가 처해 있는 실상을 그저 ‘누군가 해결했지’라는 식의 태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어느새 제주의 지하수가 아닌게 되버리고 만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제주도 삼다수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주)농심에 대항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인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다면 제주도 지하수는 물론 제주도 삼다수 또한 더 이상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농심을 대표하는, 농심의 소유로 넘어갈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동문칼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지난 4월 오랜만에 제주대학교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중충했던 강의실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밝고 산뜻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한편으로는 밝으면서도 한편으로 힘들어 보이는 후배님들을 보면서 저의 대학생활이 생각났습니다.

대학생 때 저의 소박한 꿈 중의 하나는 ‘햇볕 좋은 날 잔디밭에 홀로 누워 책을 읽다가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닌 80년대 중반에는 혼자 잔디밭에 누워있는 여학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꿈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여자다움’의 틀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인식했고, 그 틀을 깰 경우 부딪히는 시선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 몸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대학 생활 내내 생각만 하다가 행동해보지 못하고 졸업하였습니다.

돌아켜보면 스스로 정한 한계에 얽매이고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여 대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못해 본 것은 무척 아쉽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제 개인 문제라 할 수도 있지만 당시는 그것이 바람직한 ‘여자다움’이라는 틀이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는 건 더문제였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한 개인이 하는 사고, 판단, 행동 뒤에는 사회가 규정하는 틀이 은연중에 작동합니다. 그 틀을 하나 둘씩 벗겨내다 보면 성장이라는 열매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힘든 대학생활이었지만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인 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운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축복이며 동력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잔디밭에서 혼자 편안하게 자고 싶은 소박한 꿈이 제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 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면 사회가 여자 혼자라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여성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선택할 때, 저는 ‘돈도 못벌면서 고생만 한다’는 가족의 걱정이나 ‘여자가 너무 나선다’ 등의 주변의 비난을 받았습니



김효선 (사회학과 83학번)
제주여성인권연대 해냄 대표

지 않았던 것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을 볼 때 분노했고, 자신이 당한 문제를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그 여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함께 힘들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저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사회의 변화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 삶의 궤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꿰어 맞추어 설명하지만, 당시는 그저 단편적인 기억으로 남은 사건들이 못해 본 것은 무척 아쉽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보니 하나의 점과 같았던 우연한 사건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선이 된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시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자산으로 삼길 바랍니다. 비록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망하고 있으면 삶이 그 방향으로 간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제 경험에서처럼 작고 소박한 바람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아쉽 인생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대학생활에서 세속적 성공이라는 미래를 위해 자신을 유예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삶에 대해 배우는 시간과 장소로 여겼으면 합니다.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데, 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드민턴 땀흘리며 체중관리 재미 ‘쏙쏙’

평생교육원-배드민턴 강좌

모두가 퇴근한 늦은 저녁, 땀을 내며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팔을 어떻게도 휘둘러 보고, 다리 위치를 바꾸며 자세를 다양하게 바꿔보기도 한다.

그들은 바로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배드민턴 강좌부 학생들이다.

매주 월, 수, 금 7시부터 인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정성원(제주시 생활체육회 일반생활체육지도사)씨의 주도로 진행된다. 집안일만 하는 주부에서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취미삼아, 그리고 원래 운동을 좋아하거나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는 학생들까지 이유로 각양각색이었다.

15주차로 진행되는 이 강좌는 성인들 위주로 기초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정성원씨는 “학생들의 실력이 하루하루 늘어갈 때 보람을 느낀다”며 “배드민턴은 최선을 다하고 배우는 사람이 감동을 받기에 연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인터뷰를 하는 순간까지도 학생들은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의 잔소리에도 군말 없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었다. 숨은 탁까지 차오르고, 웃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지친 기색 없이 공을 치고 또 친다.

그들이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배드민



배드민턴 강좌 수강생들이 배드민턴 채를 들고 실재없이 움직이고 있다.

턴을 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임종규(40, 일도2동)씨에게 있어 배드민턴은 생활의 즐거움이자 활력이다. 임씨는 “배드민턴을 하면 부지런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영미(38, 일도동)씨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운동에 배드민턴을 꼽았다. 박씨는 “나는 주부인데 배드민턴을 시작하며 자기만의 시간이 늘어났다”며 “배드민턴은 공간 제약없이 활동성이 제일 많고 머리를 쓰는 운동이라 집중력도 높아준다”라고 말했다.

고현아 수습기자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외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학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신문에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press@jejunu.ac.kr입니다.

캠퍼스의 밤을 밝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밤은 뭔가 의미있는 시간이다. 짝사랑을 생각하며 가슴 두근대는 시간. 동료들과 술 한 잔하며 회포를 푸는 시간. 잠자리에 누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며 설레는 시간. 바로 우리들의 밤이다. 캠퍼스에는 이러한 밤을 조금은 특별하게 보내는 대학생들이 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것이다.

어둑어둑 하늘이 눈을 감고 별빛만 희미하게 반짝이는 늦은 저녁. 빛이 새어나오는 대학의 건물들을 찾아갔다. 꿈을 위해 반짝반짝 빛나는 그들의 빛을 따라가보자.

<편집자주>

어두운 밤. 연구를 위해 밝게 불을 밝히고 있는 공과대학 4호관.

“오늘의 밤샘이 미래를 만든다”

“꿈이 있으니 밤샘 작업도 즐거워요”
조소설습관 오소민 (미술 3)

설습관 안에 들어 서자마자 숨을 쉬기 힘들 정도에 본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 역한 냄새 속에서도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아무렇지 않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소민 (미술 3)씨는 공묘

오소민(미술3)씨

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올해 편입을 한 그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좀 많다.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려니만 육체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견딜 만해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좀 많아 힘들

법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았다. 조각가가 꿈인 그녀는 원래 공예를 했었다. 그녀는 공예보다는 조소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스케일 크게 활동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에 조소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소를 하는 것이 힘든 일임을 알면서도 공예를 포기하고 조소를 선택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많아요. 여자가 하기엔 힘든 일이고 미래가 불투명하잖

아요? 그리고 지나간 과정을 견뎌내야만 조각가가 될 수 있죠. 힘든 걸 이겨내야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낀 길을 걷고 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길에서 누군가에게 치여도 참고 견뎌야하는 길을 걷고 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이요? ‘It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낫다’ 가 좌우명이지요.”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녀이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며 삶을 산다. 그러나 행동은 본인의 의지이다. 본인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지요. 이쪽 길을 걷고 싶다면 예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도 부지런해야하고 행동도 부지런해야죠.”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뜨거운 가슴도 그렇게 쉴 새 없이 뛰고 있으리라.

“함께 연구하는 선배들과 꿈 키워가요”
어류유전독종학실험실 김일태 (산업대학원 1)

일반인들에겐 생소할 수 있는 어류유전독종학. 듣기만 해도 어려울 거 같은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실험실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김일태 (산업대학원 1)씨가 있

었다. 다양한 어류가 지닌 유전적 성질을 이용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해내는 일을 하는 그는 그 분야의 연구사가 되고 싶어한다.

“이 분야가 관련 분야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분야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사가 되고 싶어요.”

자신의 길을 사랑한 그였기에 매일 밤을 어류에 대해 연구하며 지새운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에게는 고민이 있다. 바로 대인관계이다. 연구에 몰두하다보니 친구와 술 한 잔 마실 시간도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한다. 그에 곁에는 항상 선배들이 있다. 힘들 때 힘이 돼주고, 진로에 대해 조언해주는 선배, 드라마에 나올 법한 정 많은 선배가 곁에 있다.

“삶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실험실 선배예요. 오랫동안 접해온 사람이고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상담도 해주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는 선배가 앞에 있어 그런지 쑥스러워했다. 선배에 대한 감사함을 더 말하고 싶었을 그였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감사함을 굳



김일태 (산업대학원 1) 씨

이 말하지 않아도 선배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밤에도 그들은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키워나가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늦은 밤 자신과의 싸움도 꿈이 있기에...”
음악연습실 강나리 (음악 2)

어디선가 나를 유혹하는 선율이 흐른다.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건물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다. 매혹적인 소리를 따라간 곳은 음악관 옆 음악연습실.

12월 초에 있는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강나리 (음악 2)씨는 클라리넷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다.

“솔직히 힘들긴 한데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깐 견딜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음악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의 세계에 빠져게 됐다.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다보니 나 자신과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좋은 상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좋은 모습, 밝은 모습을 상상하곤 하죠.”

힘든 싸움을 금방 포기해버릴 것만 같은



강나리 (음악 2) 씨

여린 소녀가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처럼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꽤 남성적이라 한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혼자 잘 해결하고, 딸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훌륭한 클라리네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클래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클래식이 쉽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제주의 클래식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꿈을 좇는 자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의 좌우명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갑작스레 나타난 장애물 때문에 걸어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꿈이라는 권리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녀는 꿈에 대한 의무를 잘 지키려 하고 있다.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그녀는 꿈의 의무를 지켜낼 각오를 하고 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녀의 클라리넷 소리를 막지 못하리라.

취재를 마치고 바라본 어두운 밤하늘.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속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달콤한 잠에 빠져버리면 어둠속에서 한 발짝 뒤쳐져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쉬지않고 걷고 있다. 그들도 언젠간 꿈을 위해 밤하늘을 밝혀주는 별이 될 것이다. 누군가가 그들을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게 말이다. 오늘 밤도 그들은 밤을 지새운다. 밤하늘의 빛나는 저 별을 바라보며. 강민성 수습기자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
글 / 김순재(국어문화원 연구원)
그림 / 고아라 특필기자

12 조랍다



▶ **날말들이**

졸부대·졸꾸러기: 잠꾸러기

조랍다 : 졸립다

해외견학 및 연수, 기업방문

세계자연유산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세계유명명산, 해외감귤산업체방문, 해외물산업체방문
농업, 축산업기관방문 및 연수, 산업별 박람회 - 반도체, 기계, 건축,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중국

- 북경/만리장성 4일
제주-북경-천안문광장-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 상해/항주/소주 4일
제주-상해-소주절정원-항주서호-황포강유람선-외탄야경
- 상해/장가계 5일
제주-상해-장가계-천자산-보봉호-황룡동굴-백룡엘리베이터

일본

- 동경/후지산 4일
제주-니리타-외쿠타니계곡-하코네유람선-긴자거리-신주구거리
- 오사카/나라/코토 4일
제주-오사카-동대사-청수사-오사카성-고베

대만

4일
제주-부산-타이베이-화롄-태각로-아류-양명산-천-국립고궁박물관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제주-인천-싱가폴-버탐섬-조호바루-센토사섬

필리핀

5일
마닐라
제주-인천-마닐라-팍상한폭포-따알화산-히든벨리

인도

8일
인도/젠시스
제주-인천-델리-젠시스강-황금사원-타지마할

베트남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제주-인천-하노이-하롱베이선상유람(세계문화유산)-땀꼭

홍콩

4일
제주-인천-홍콩-해당공원-리펄스베이-빅토리아산정

지중해

8일
터키/그리스
제주-인천-이스탄불-에페소-파묵갈레-안탈라-카파도키아-아테네

캄보디아

5일
캄보디아/앙코르왓
제주-인천-씨엠람-앙코르왓사원-톤레살호수-암살라민속디너쇼

태국

8일
방콕/파타야
제주-인천-방콕-수상촌-왕궁-파타야-산호섬

호주

6일
시드니

미주

미동부

미서부

케나다

8일

유럽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8일

하너투어전문 판매대리점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JR투어 일정 및 견적문의
TEL. 748-2002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졸업]
H.P: 010 - 4693 - 2394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